

공공부문 전체 수지만으로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, 향후 세수 및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.

< 보도내용 >

- 2026.9.18. 조선일보 「정부도 공기업도 '마이너스(-)'…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83조, 역대 최대」, 서울경제 「세수 회복에도 지출 더 늘어…공공부문 적자 83조 역대 최대」 기사에서,
 - “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‘2025년 공공부문계정(잠정)’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8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, 전년(-69조1000억원)보다 적자가 14조원 늘어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컸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기획예산처 입장 >

- ‘한국은행 공공부문계정(잠정)’은 일정기간 공공부문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기록한 연례적으로 발표되는 통계치로서,
 - 공공부문의 수지를 단순히 합친 것으로, 이를 통해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, OECD 38개 회원국중 6개국*만 발표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.

* 한국, 일본, 영국, 호주, 덴마크, 스위스

- 특히, 일반정부와 시장에서 재화·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기업은 수지의 성격과 변동요인이 상이하므로, 공공부문 전체 수지만으로 정부의 재정상황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경우 잘못된 해석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.
- 따라서, 각 부문별 성격에 맞게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'25년 공공부문 수지 적자는 4분기 연속 0% 내외 성장 등 계엄 이후 마이너스 성장 등 침체된 경제상황*을 반전시키기 위해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.

* 실질 GDP 성장률(전기비, %): ('24.2Q) △0.2 (3Q) 0.1 (4Q) 0.2 ('25.1Q) △0.2 (2Q) 0.6 (3Q) 1.4 (4Q) △0.1

- 그 결과 '26년에는 적극재정 → 경제성장 반등 → 세수 증대 → 재정여건 개선의 선순환을 이뤄내면서, 세수 및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*될 전망입니다.

* 경상 GDP 성장률(%): ('26 당초) 4.9 → ('26 수정) 12.3

국세수입(조원): ('25 2차추경) 372.1 → ('26 추경) 415.4 → ('27안) 584.4

관리재정수지(%): ('25 2차추경) △4.2 → ('26 추경) △3.8 → ('27안) △0.1

- 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을 반등을 뒷받침하고, 엄격한 지출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특히 내년에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△0.1%로 크게 개선되고, '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△3% 이내, 국가채무비율을 50% 미만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	책임자	과 장 오현경 (044-214-1870)
	지속가능재정과	담당자	사무관 이재원 (jaewonlee@korea.kr)

